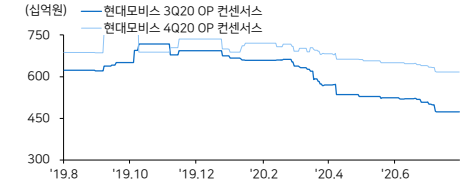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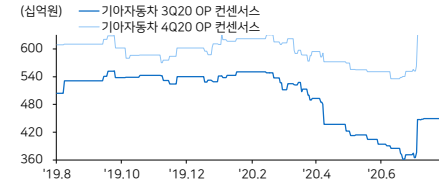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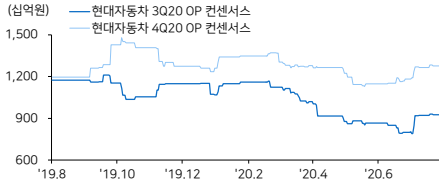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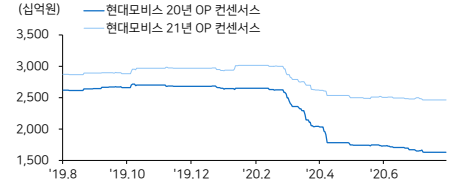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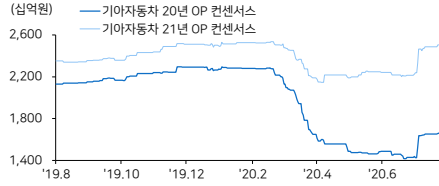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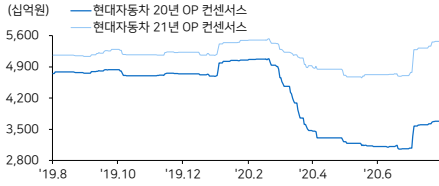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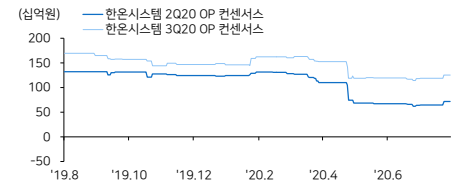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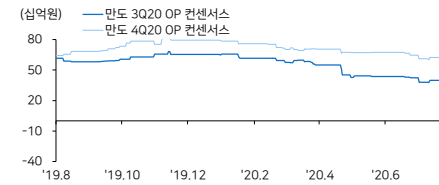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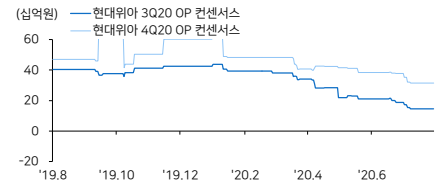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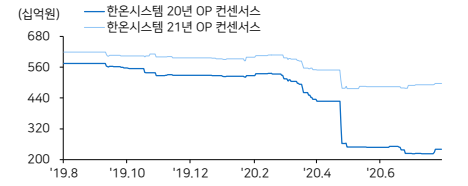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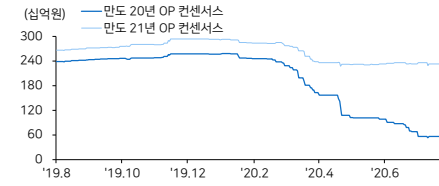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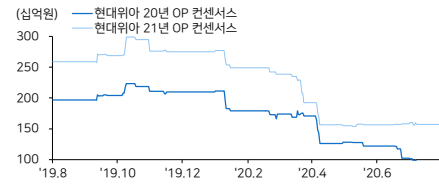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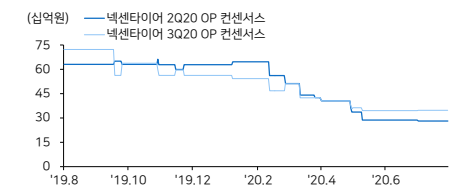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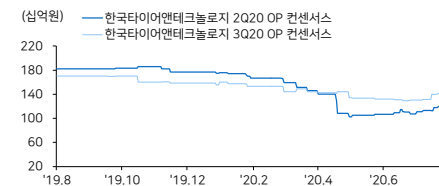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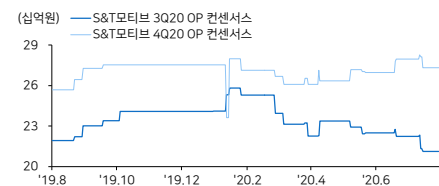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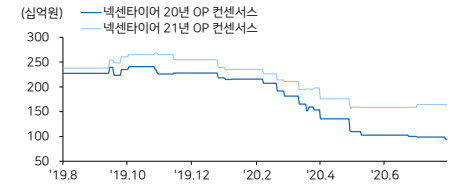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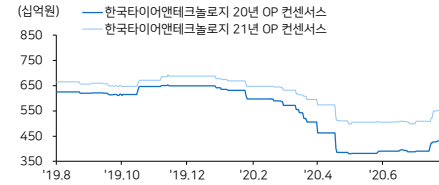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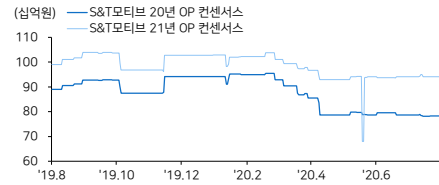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미국 기술만족도 조사서 일반 브랜드 1위 기업 (뉴스웍)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미국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혁신 기술력을 인정받았음. 미국 시장조사업체 J.D.Power가 발표한 '2020 고객 기술 경험 지수'에 따르면 현대차는 일반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이름을 올림.
<https://bit.ly/32loFpN>

정몽구 현대차 회장, 40일 넘게 아산병원 입원 중...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는? (조선비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7월 중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40일이 지난. 정 회장은 7월 13~14일 무렵 대장개설염 수술을 위해 입원. 동성 대장개설염이 회복까지 2주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이 길어진다는 게 일반적이다.
<https://bit.ly/2E6x0hP>

미 테슬라, 상반기 중국 전기차 시장 휩쓸었다 (머니S)

닛케이신문 및 중국 자동차분석기관 WAYS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5만대로 1위를 기록. 테슬라의 이런 판매 호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의 위축세가 이어진 가운데 나타난 것.
<https://bit.ly/3aUVKw0>

한 번 충전하면 500km 주행...폭스바겐 전기차 'ID.4' 양산개시 (스포츠투데이)

폭스바겐의 완전 전기차 ID.4가 본격 생산을 시작. ID.4는 콤팩트 SUV 전기차. 외신에 따르면 ID.4는 독일 츠비кау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 이 공장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으로 12억 유로(1조 7000억원)를 투자해 설립.
<https://bit.ly/2EAeWTG>

현대 - 기아차, 하반기 'MPV' 중국 시장 공략 (헤럴드경제)

현대 - 기아차가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거둔 중국시장에서 'MPV(다목적 차량)'로 반전을 노림. 내달 열리는 베이징모터쇼를 기점으로 신차를 잇달아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
<https://bit.ly/3gdsEXO>

코로나19로 자차 소유 늘었다...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돌파 (파이낸셜뉴스)

올 6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400만 대를 넘음. 2018년 2300만 대를 기록한 이후 2년 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02만3083대를 기록했다고 밝힘.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
<https://bit.ly/2Eybfxs>

테슬라, '모델Y'로 전기차 대세 굳히다 (뉴스토마토)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모델Y'를 통해 전기차 대세 굳히기에 나선. 모델3가 올해 높은 인기를 얻은 가운데 모델Y도 모델X의 보급형 차종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임.
<https://bit.ly/2YrF1ew>

새 주인 찾는 쌍용차, 중국 배터리 1위 CATL '입찰' (아시아경제)

쌍용자동차가 물색 중인 신규 투자자에 중국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이 막판 유력 후보로 떠오름. 극심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 기로에 선 쌍용차가 또다시 중국 자본을 유지해 극적 회생할지 관심이 쏠림.
<https://bit.ly/2Em6A26>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